

세계 녹색기업 100사 서울에 모인다!

세계 35개국에서 100개의 녹색기업이 서울에 모여 국내기업과 녹색산업 협력을 추진한다.

지식경제부와 KOTRA는 10월 13-14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<그린허브코리아 2010>를 개최한다.

그린허브코리아에는 세계 최대 풍력기업인 네덜란드 Vestas 등 신·재생 에너지 관련기업들이 대거 참가한다.

2010년 4월 미주 및 유럽지역에서 2100MW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한 Vestas는 아태 지역본부 최고경영자(CEO)와 본사 구매총괄책임자가 방한해 국내 부품·소재 협력기업을 찾아 나설 계획이다.

미국 버지니아 주정부의 최초 한국계 각료인 제임스 리 상무차관은 해상풍력시험센터 설립에 참여할 국내 기업을 물색할 것으로 알려졌다.

국내에서는 현대중공업, STX에너지, 유니슨 등 녹색기업 관계자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.

그린허브코리아는 수출, 해외프로젝트 진출, 기술력 제고 등을 통해 국내 녹색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제2회 국제카본포럼, 청정개발체제(CDM) 프로젝트 상담회, 글로벌그린기업 초청상담회 등 모두 6개의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.

<화학저널 2010/10/13>